

특별한 송년의 밤 '월드 클래식 오페라' 감동 속으로

송년 공연이 주는 감동을 느끼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은 어떨까. 4년 연속으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월드 클래식 오페라 시리즈'가 올해도 관객들을 찾아온다.

광주시립오페라단(예술감독 최철)이 송년공연 '월드 클래식 오페라 시리즈 IV'를 오는 7일(오후 2시 30분, 오후 5시)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펼친다. 올 한 해 오페라단 등에서 주역으로 활약한 배우들이 총출동할 예정이며, 오페라 연기에 해설, 영상이 곁들여져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아돌프 아담의 '오 거룩한 밤'으로 시작하는 공연은 이선택이 편곡한 '아리랑 모음곡'으로 이어진다. 광주 CBS 소년소녀합창단이 화음을 더하고 (사)카메라전남, 피아니스트 김성근이 함께한다.

푸치니 '예술에 살고 사랑에 살고'는 오페라 '토스카' 주역을 맡았던 소프라노 김라희의 목소리로 실린다. 김 소프라노는 이외베를린 곡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연발



광주 CBS 소년소녀합창단

겨울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특별 초청된 테너 조용갑은 총 두 곡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푸치니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과 아담스 '거룩한 밤'이 바로 그것. 이어지는 페조소프라노 서미선의 '하바네라'는 비제 오페라 '카르멘'의 감동을 재현한다.

바리톤 공병우가 부르는 비제 '투우사의 노래'도 있다. 제2막에서 투우사 '에스카필로'가 등장해 투우 경기 중 일어나는 여러 상황에 대해 노래하는 곡. 이밖에 웨덜리가 편곡한 '아, 목동아' 등이 레퍼토리에 있다.

테너 강동명은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중 '그대의 찬 손'을, 소프라노 김희정은 같은 작품에서 '내 이름은 미미'를 부른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푸치니 곡 '사랑스런 아가씨'도 즐거움을 선사한다.

끝으로 전 출연진이 어우러지는 베르디 '축배의 노래(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와 자비 그루버 곡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광주시립오페라단 송년공연
내일 ACC 예술극장 극장1
'오 거룩한 밤'으로 공연 시작
아카데미 '오페라 the 가까이' 진행

올려 퍼진다. 부산오페라발레단 주역 무용수 신승우와 광주시립발레단 객원 무용수를 역임한 이승민의 춤사위도 볼 수 있다.

지휘봉을 드는 박인욱은 전남대 음악학과 교수이자 (사)카메라전남 음악감독을 맡고 있다. 빈국립음대 대학원 과정을 수료했으며 스페인 바르셀로나 리세우 대극장 부지휘자를 역임했다.

한편 공연 당일에는 관객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오전 11시 ACC 예술극장 '빛라운지'에서 관객을 위한 아카데미 '오페라 the 가까이'를 무료로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출연진과의 대담은 물론 오페라 아리아 공연, 전문가의 작품 해설 및 관객과의 소통으로 구성되어 본 공연 이해를 돕는다.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문화예술교실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

최철 예술감독은 "대표 송년 공연 중 하나인 '월드 클래식 오페라 시리즈'는 오페라계 거장들이 남



광주시립오페라단이 2024 송년공연 '월드 클래식 오페라 시리즈 IV'를 오는 7일 ACC 예술극장에서 펼친다. 지난 송년공연에서 배우들이 열연하는 모습. <광주시립오페라단 제공>

긴 역작을 연인, 가족, 친구와 감상할 수 있는 갈라 콘서트다"며 "앞선 무대에서 전달했던 '감동'이 주역 배우들의 재연을 통해 다시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석 2만원. 티켓링크, 전당 누리집 등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7명의 예술가 '아무 생각 없음·있음'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센터, 6~15일 입주예술가 발표전

시각, 무용, 음악, 연극 등 장르의 예술가들이 1년간 입주를 하며 창작활동을 해온 결과물을 선보이는 발표전을 연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 청년예술센터가 제8기 입주예술가 발표전 '아무 생각 없음·있음'을 선보인다.

6일부터 15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발표전은 모두 7명의 작품과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자리다. 개막은 6일 오후 4시.

참여 작가는 시각 부문 김민경·임기준·최윤정을 비롯해 음악 박성연, 무용 김유진, 연극 장도국, 종합 김선화 등이다. 이들은 저마다의 관점으로 청년 세대가 지향하는 작품세계를 선보인다.

김민경 작가는 '아이러니'를 주제로 내세웠다. '잘 사라질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갈조류 추출물을 재료로 활용했다. 이전의 작업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은 작품이지만 역설적으로 잔

여물을 남기는 것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됐다. 작품 '누구의 것인가'는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이며 어떤 운명으로 사라져야 하는지 고찰한다.

김선화 작가의 '불안의 서'는 기록의 순환이라는 관점을 담았다. 사람을 만나고 상황을 겪으며 파생되는 순간을 글과 이미지로 기록했다. 작가는 '기록의 순환이 나라는 사람의 서사의 총체'라고 본다. 이 같은 인식은 작가 외에도 모든 이들의 일상과 삶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박성연은 '옥탑방 오일'을 주제로 설치작품과 음악 공연을 들려줄 예정이다. 작가는 80년에 태어나 책으로 역사를 이해했을 주인공 '어니'와 유사한 경험을 소유한 이들이 겪는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

연극인 장도국은 '마당'을 주제로 입주예술인들과 마당극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해학과 풍자로 민



최윤정 작 'I AM'

초들의 애환과 아픔을 풀어냈던 마당극을 청년 예술인들과 새로운 감성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작품 '마당극'은 정부 일방적 의료개혁이 빚어낸 희생자를 애도하고 의료개혁이 공동체가 관심을 갖고 풀어가야 할 과제임을 환기한다.

최윤정 작가의 '화원'은 꿈과 몽상의 이미지 구성에 초점을 맞췄다. 작가는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움직임을 시각화하고 우리 삶을 비현실적인 여정으로 풀어냈다"며 "지하실의 화원을 지상으로 끌어내 정제된 이미지로 표현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임기준 작 '캐피행성-생존자들'

'문학을 읽다'

10일 무등도서관...김정은 강연



김정은 소장

올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의 저력을 세계에 알린 쾌거였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는 노벨상 심사위원회의 평은 한강의 작품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진실을 아름다운 문체로 형상화했음을 보여준다.

노벨문학상 수상과 맞물려 국내외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작가의 작품을 낭독하고 강연을 듣는 행사가 열리게 돼 눈길을 끈다.

광주시립도서관은 오는 10일 무등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문학을 읽다: 새 시대의 길을 읽다'를 주제로 행사를 연다. 한강 작가 작품 낭독 & 명사 특강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낭독, 강연, 공연, 전시 등으로 펼쳐진다.

먼저 한강 작가의 작품을 읽는 시간이 예정돼 있다. 이어 김정은 여러가지문제연구소장이 '창조적 시선: 인간은 언제부터 창조적이었는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문화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진행된다. 성악 듀엣의 공연, 광주시민 518명이 함께한 필사 전시, '빛투보' 구독과 함께하는 커피차 이벤트도 펼쳐진다.

한편 스웨덴의 '노벨 주간'(5-12일)에는 6-7일 수상작가 기자회견, 7일 노벨상 박물관 건물에서 작가가 한국어로 작품세계를 들려주는 강연, 10일 시상식, 12일 낭독회 및 대담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10일 시상식에서는 한림원 위원이 수상자를 초대하는 마지막 문장을 수상자 모국어나 영어로 할 예정이어서 기대가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예술 결실'

7일 수강생 수료식·발표회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지난 3월부터 진행한 '2024 전통문화예술강좌'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료식 및 결과 발표회를 연다.

행사는 오는 7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에서 펼쳐지며, 전통음식, 민화 등 '기능분야 발표회', 판소리 및 판소리교법, 가야금병창 등 '예능분야 발표회'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이순자의 판소리 '심청가' 중 '주막 밖을 나서더니', 양신승 판소리 교법 '백구가', '심청가' 중 '행덕이 심술대목'이 관객들을 만난다. 방성춘, 최

연자는 각각 '춘향가' 중 '춘향 그네 타는 대목'과 단가 '사월가'를 부르며 김선이는 '흥보가'에서 '각설이 타령'을 들려준다.

이외 황승욱 가야금 병창이 들려주는 민요 '옛노란 저고리', 문명자 청소년 가야금병창의 '꽃타령', 김선이의 판소리 '흥보가' 중 '각설이 타령' 등이 울려 퍼진다.

전통문화팀 김연아는 "전통문화예술강좌는 광주시 무형유산 보유자에게 직접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어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며 "내년 3월에 개강하는 상반기 강좌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2024 전통문화예술강좌' 수강생들 모습.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제공>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